

인도 넓은 금남로, 도심 부활 해법 될까

문화전당~금남공원 518m, 2차로로 줄여 대중교통만 다니게

광주전남연구원 녹색교통희서 제안...유동인구 늘어 상가 매출 증대

쇠락세를 면치 못하는 광주 옛 도심 중심대로 금남로를 활성화하는 대책으로 금남로 518m(문화전당~금남공원) 구간의 차로를 대폭 줄여 대중교통만 다니게 하고 인도를 넓혀 걷기 편한 도로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왕복 5차선으로 된 도로를 왕복 2차선만 남기고 나머지를 인도로 넓힌 뒤 문화전당, 민주평화회 상정하는 금남로와 연계해 광주를 대표하는 '걷기 편한 명소'로 만들자는 것으로, 옛 도심을 살릴 수 있는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5일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성 타지자제 사례와 광주시 도입방안'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6일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리는 지구의 날 기념 녹색교통토론회에서 발표한다.

내용은 간단하다. 도로교통법(제 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근거해 시민 여론을 수렴한 뒤 기존 5개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줄이고 나머지 공간을 인도로 쓰자는 것. 차선 축소에 따른 교통 정체는 이 구간을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해 심야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면 풀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남로 518m를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조성하자고 제안한 이유로는 쇠락하는 도심 상권과 교통여건, 주차시설 등이 고려됐다.

국도해양부가 권장사항으로 든 것처럼, 도로 폭이 15~20m정도 되고 200m 이상 길이가 확보된데다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지정될 경우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고 상가 구성이 돌아다니며 소망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남로 주변 주차시설이 총 2680면 정도로 주차공간이 충분치않고 상시로 차량정체가 빚어지고 있어 교통 '체질'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반영됐다. 이 구간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편이 잘 마련돼 있어 시민 불편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적지않을 것이라 분석이다. 1차적 효과로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휴식공간이 조성되면서 매력적인 도심공간이 만들어진다. 장기적으로는 서울 연세로, 대구 중앙로, 부산 동천로처럼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 유동인구와 체류시간이 늘어나 상가 매출액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또 상습 정체를 빚는 금남로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소음, 대기오염이 감소해 환경적으로도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지난 2012년 광주시가 이 구간의 차선을 없애고 서울시청 잔디광장처럼 바깥으로 방침을 정했다가 무산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충분한 시민합의 과정을 거쳐야할 것으로 보인다.

양철수 연구위원은 "문화전당 개관과 주변 상권, 금남로 교통 여건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도입해 볼만하다"면서 "시민 의견 수렴은 물론 건물주, 상인 등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지하상가와 연결기능 강화, 차량 통제구간 주변 주차장 추가 확보도 필수적 고려요인"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2 달뜨기 05:19
해질 18:58 달지기 17:36

천둥·번개 동반 많은 비

내일까지 30~100mm의 많은 비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9/20	보성	6/16
목포	7/16	순천	9/18
여수	11/15	영광	4/19
나주	5/19	진도	6/16
완도	9/16	진주	6/22
구례	5/19	군산	5/21
강진	7/16	남원	5/20
해남	7/16	홍산도	8/12
장성	5/19		



◇비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동	0.5~1.0	동	0.5~2.0	
남부	남동	1.0~2.0	남동	1.5~3.0	
남해	남동	0.5~1.0	남동	1.0~2.5	
서부	남동	1.0~2.0	남동	2.0~3.0	
전남	남동	1.0~2.0	남서	2.0~4.0	

◇생활지수

주요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파부질환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57	06:25
	13:26	18:52
여수	08:26	01:57
	20:42	14:26

◇주간 날씨

7(목)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	☀	☀	☀	☀	☀	☀
13/20	8/21	9/21	9/21	10/21	10/21	11/21

장휘국 교육감 “누리예산 편성 불가”

광주시의회 27일 예산안 처리 불투명

장휘국 광주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 예산 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광주시의회가 오는 27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어린이집 예산과 연계해 유치원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점을 들어 유치원 예산안만 편성할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회 때 유치원 예산만 편성, 시의회에 제출할 지 다른 교육 현안 사업 예산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낼 지는 검토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임시회 때 3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안(176억3900

만원 상당)을 편성해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지역 유치원들에게 배정할 바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광주시가 자체 예산으로 3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나머지 예산안 편성과 관련, “유치원은 감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불가’ 방침을 내놓으면서 향후 광주시의회 예산안 심의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해 본예산 심의 때 어린이집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형평성을 들어 유치원 예산안을 삭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야구장 갈 땐 대중교통으로”

챔피언스필드 불법 주차차 단속

‘프로야구 관람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광주시 북구가 2016 프로야구시즌 개막을 맞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홈경기 개최시 경기장 주변 불법 주차차 단속을 시행한다.

해마다 야구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북구 임동 경기장 주변 대로변의 2~3층 불법 주차차로 주민불편과 차량정체가 유발돼 왔다. 올해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는 모두 72경기가 예정돼 있다.

북구는 경기장 주변 불법 주차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야구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병아리들의 진지한 소방훈련

광주시 북구 중흥어린이집 원생들이 5일 오전 북구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직원들과 화재 진압 체험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풍암·금호고 ‘진로교육 집중 학기’ 시범운영

교육부 5개년 계획...모든 중·고교 전담교사 배치

정암초·동곡초·비아중, 연구학교에 선정

광주 풍암고와 금호고가 올해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시범 운영한다. 또 정암초와 동곡초, 비아중학교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학교’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5일 모든 중·고등학교에 2020년까지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특정 학년이나 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진로교육 5

개년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했다. 지금까지의 1차 계획(2010~2013년)이 체험 위주 진로교육 지원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계획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목표로 제시했다는 데 있다.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는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진로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정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

로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진로 관련 활동 비중을 늘리거나 진로 관련 교과가 집중 편성되는 가 하면 사회 시간에 창업을 가르치는 등 진로 수업도 이뤄진다.

올해는 광주 풍암·금호고 등 전국 37개 일반고에서 시범 운영되며 2020년까지 시범학교 1000곳(초6·중3·일반고1), 협력학교 2000곳(초6·중3·일반고1)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또 광주에서 정암·동곡초와 비아중을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연구학교로 선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심리검사도 이뤄지고 2020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다. 현재는 중학교의 95.3%(5298교)에 배치돼 있다.

아직 진로전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에는 올해부터 보직교사를 진로전담교사로 임명하는 식으로 배치한다. 또 탈북학생, 다문화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로상담 매뉴얼을 만들고 대학 1~2학년 때부터 정규 과정에 진로 교육을 포함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총 2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 소아/라식/라섹/ICL/백내장/녹내장/망막/눈성형/노안

백운광주안과

법인이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이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